

産 業 關 係 研 究
 第14卷 第2號, 2004. 12, pp. 77~96
 © 韓 國 勞 使 關 係 學 會

한국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지연과 학연

김 용 민* · 박 기 성**

본고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1997~2000년 사이의 4년간에 걸쳐 수집된 최고경영자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대기업 최고경영자 시장에서 지연과 학연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 지연과 학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먼저, 기업주와 전문경영자 짝(pair)이 같은 지역 출신인지 여부와 고등학교 동문인지 여부를 통해 지연 및 학연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연과 학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에 속한 기업에서 기업주와 동향 또는 고교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성향이 높았다. 둘째,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기업생애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기업에서 기업주와 동향 또는 고교 동문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성향이 높았다. 셋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늘었다. 정부의 영향력이 크거나 규제가 심한 산업 또는 경우에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 주제어: 최고경영자(CEO), 지연, 학연

I. 서 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지연과 학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89년에 실시한 한국사회학회의 전국규모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6%가 그들의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02-910-4538, yongmink@kookmin.ac.kr.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서신저자), 02-920-7154, kpark@sungshin.ac.kr.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이 논문은 200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지연에, 29%가 학연에 의존한다고 대답하였다(김용학, 1991). 기업, 정부, 군대 등 핵심적인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지연과 학연은 인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항상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지연의 예로는 “국민의 정부”의 호남편중 인사를 들 수 있다. 2000년 3월 현재 10대 권력핵심(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방장관, 법무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중 50%인 5명이, 장관급 28명 중에서 35.7%인 10명이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의 전체인구 비중인 11.8%를 크게 상회하여 호남 중심의 지역 편중 인사가 논란이 되었다(김차수, 2000). 1990~2002년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의 출생 지역을 살펴보면 호남 출신은 노태우 정권 0.0%, 김영삼 정권 7.1%, 김대중 정권 52.9%로 급증한 반면에 영남 출신은 각각 63.6%, 78.6%, 17.6%로 급감하였다(유의영, 2003).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영남 출신이 다시 약진하고 있다. 1급 이상 공직자(233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2003년 4월 현재)에서 호남 출신은 26.6%, 영남 출신은 39.9%로 각 지역의 1970년도 출생인구 비율인 24.1%, 32.8%를 상회하고 있다(유의영, 2003).¹⁾

학연이 정부나 기업체 인사에 작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의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어 본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학연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oon and Kim, 2000). 이들에 의하면 상장사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출신의 기업주가 대학 동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비율(각각 17.3%, 16.2%)이 전체 사외이사 중에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각각 10.4%, 10.5%)보다 높게 나타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학연이 작용하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져 각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국 자본주의를 외국 학계나 언론에서는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까지 혹평하고 있으며, 1997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연고자본주의를 지적하고 있다(예: Wei and Wu, 2001; Moon, 2000). 물론 이 현상은 한국이나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Hillman, Zardkoohi, and Bierman (1999)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도 임직원을 정부의 요직에 진출시켜 기업이 여러 혜택(firm-specific benefits)을 얻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를 포함한 연고주의(cronyism)의 폐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훨씬 심하다(Wei, 2000).

자본주의 핵심 주체인 기업에서의 지연과 학연의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본고는 한국 대기업 최고경영자 시장에서 지연과 학연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 지연과 학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본다.

1) 북한과 외국 출신을 제외한 비율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영(2003)을 참조.

구체적으로 기업주와 전문경영자 짝(pair)이 같은 지역 출신인지 여부와 고등학교 동문인지 여부를 통해 지연 및 학연의 실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지연과 학연이 발생하는 것은 동향이나 동문을 좋아하는 선호 또는 기호 때문이거나 태만 방지의 수단으로 지연과 학연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정부의 영향력이 크거나 규제가 심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서는 정권 담당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로비(lobbying)를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을 살펴보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의 지연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 기업의 소유주가 전문경영자를 선택할 때 동향이나 동문이라는 것이 고려되는 이유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알아본다. 제III장에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서술하고 소유경영자, 전문경영자, 기업주 등의 정의를 제시한다. 제IV장에서는 최고경영자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하고 이론적 논의로부터 유도되는 가설들을 검증한다. 제V장은 요약과 더불어 본고의 결론을 맺는다.

II. 이론적 논의

기업의 소유주가 전문경영자를 선택할 때 본인과 동향이거나 동문이라는 것이 고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기업주가 동향이나 동문 전문경영자를 좋아하는 선호체계(preference system or utility function)를 가지고 있어서 생산성이 같거나 조금 떨어지더라도 동향이나 동문을 전문경영자로 선임할 수 있다(Becker, 1957). 여기서 우리는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이라는 기호(taste)와 이 기호가 초래하는 결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朴基性, 1990). 기업주가 상대적으로 동향 또는 동문 출신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향 또는 동문 선호감이라는 기호가 있다는 것이고, 이 기호는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의 선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호에 기인하므로 嗜好的 緣故主義(taste cronyism)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호가 있다고 항상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기업주가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이 있지만 비동향 또는 비동문 출신을 선임한다.

주관적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의 정도가 같다 하더라도 시장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객관적 연고주의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먼저 경쟁시장 구조를 생각하자. 기업주들이 각각의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에 따라 생산성이 더 높은 비동향 또는 비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하지 않고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하거나 편파적으로 대우하면 기업주의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이 작을수록 생산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가장 작은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을 가진 기업이 시장 전체의 생산을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장의 모든 기업들은 정상 이윤을 확보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업의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 만큼만 연고주의에 따라 선임하게 되어 이 시장의 연고주의 정도는 이 기업의 연고주의 정도와 일치한다. 매우 강한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을 가진 기업주라도 시장이 경쟁적이면 그의 기호를 실현하기 위해 손실 또는 기업 퇴출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가장 작은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을 가진 기업주의 연고주의 이상으로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수 없다. 반면에, 독점기업에서는 한 기업만 있기 때문에 그 기업주의 선호감에 따라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하거나 편파적으로 대우해 주더라도 독점적 지대(monopoly rent)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한 독점기업은 유지된다. 즉 독점기업주가 가진 동향 또는 동문선호감이 아무 제약 없이 그대로 연고주의로 실현된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의 정도가 낮을수록 또는 독점적 지대가 클수록 기업주와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얻는다.

가설 1. 경쟁의 정도가 낮을수록 또는 독점적 지대가 클수록 기업주와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학(1996)은 한국 사회에서 연결망(social network)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존재의 근거를 거래비용의 절약에서 찾고 있다. Prendergast and Topel(1996)은 情實主義(favoritism)가 일반적으로 조직(organization)에 해를 끼치므로 방지되어야 하지만, 구성원들이 권력에 대한 수요(demand for power)를 가지고 있으면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고주의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전문경영자의 자리가 태만(shirking) 가능성이 높거나 태만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큰 경우를 고려하자. 기업주와 동향 또는 동문 출신의 전문경영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챙기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발각되면 기업주는 그에 대한 평가를 동향 또는 동문 사회에 알릴 수 있다. 지연과 학연이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동향이나 동문 출신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큰 비용이 될 것이다.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의 선임은 기업주에게 감시 비용(monitoring cost)을 줄일 것이다(Kim and Park, 2002). 그러므로 태만의 가능성이 높거나 태만으로 인한 손해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주와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얻는다.

가설 2. 태만의 가능성이 높거나 태만으로 인한 손해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주와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Cornell and Welch(1996)은 選拔 差別(screening discrimin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을 기업주의 전문경영인 선임에 적용할 수 있다. 기업주가 전문경영인을 선임할 때 자기가 속한 집단인 동향 또는 동문 출신 응모자들(applicants)의 생산성을 비동향 또는 비동문 출신 응모자들의 생산성보다 더 잘 판단하거나 같은 연결망의 사람들로부터 더 잘 검증받을 수 있다면 동향 또는 동문 출신의 응모자들 중에서 생산성이 높은 자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기업주가 자기의 기호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嗜好的 緣故主義처럼 보이지만, 정보의 부족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인 選拔 緣故主義(screening cronyism)라고 할 수 있고 연구주의가 생산성을 올리는 경우이다.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the business-government interface)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기업에게 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야기한다(Williamson 1991). 이것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로비(lobbying)나 정치헌금을 하거나 임직원을 정부의 요직에 진출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은 유리한 입법이나 정책집행이 되도록 하거나 직접적인 재정·금융지원을 받기도 한다(Hillman, Zardkoochi, and Bierman,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영향력이 크거나 규제가 심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서는 정권 담당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로비(lobbying)를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이다. 정권 담당자와 최고경영자간의 거래는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동향 또는 동문이라는 연결망에 의한 제재가 거래의 폭로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또한 이 연결망에 속한 사람들간에는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rightarrow A$ 와 같은 식의 순환 거래(circulative trading)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얻는다.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이 크거나 규제가 심한 산업 내지 경우에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설도 추론된다.

가설 3. ① “국민의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증가한다.

② 특히 정부의 영향력이 크거나 규제가 심한 산업 또는 경우에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III. 자료원과 분석 대상

분석의 대상이 된 최고경영자 자료는 1997년에서 2000년까지 4년간의 자료로서 한국상장협의회에서 발행한 경영인명록(한국상장협의회, 1997, 1998, 1999, 2000)과 온라인 인명

DB를 통해 구축하였다. 경영인명록 자료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임원진에 대한 정보, 즉 성명, 직위, 생년월일, 출신 지역, 출신 고교, 출신 대학(원)과 전공, 경력, 종교, 취미 등의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특성(demographics)이 기록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직위, 출신 지역, 출신 고교 등을 사용하였다. 경영인명록에는 일부 변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일보(people.joins.com), 동아일보(inmul.donga.com), 조선일보(db.chosun.com),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등의 일간지 및 통신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누락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분석에서 1997년 이후를 대상 기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1997년 이전에 발간된 경영인명록에는 출신고교 및 출신지역 등 임원의 인적 특성에 대한 변수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4년간의 경영인명록 중 1997년 경영인명록은 1997년 4월 현재의 기업임원 현황 자료로서 유일하게 IMF 이전의 자료이며, 나머지 자료는 IMF 이후의 자료로서 1998년 4월, 1999년 4월, 2000년 4월 현재의 경영층에 대한 자료이다.

분석에 이용된 4년간의 총 상장업체의 업체-년(firm-year)은 2,718개이다. 실제 4년 간 상장된 전체 업체-년 수는 2,899개 업체이며, 이 중 181개 업체-년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1997년의 경우 상장업체 수가 769개인 데 반해 본 연구의 표본은 695개로서 74개 업체가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대상 기업이 경영인명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2000년 이전에 상장 폐지된 업체로 기업 자료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어쩔 수 없이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최고경영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미국 등 선진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²⁾로 불리며 대부분 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기업 합병 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CEO의 유고시 한시적으로 공동 경영인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국내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를 식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주관적 판단을 동원해야만 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최고경영자를 조직 성과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경영자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된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그 구성원 중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즉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김수복, 1998). 복수의 대표이사를 허용하는 이유로는 단일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법률적인 목적 외에도 신규사업 분야로의 투자로 인한 사업분야별 책임경영과 이에

2) 미국 기업의 CEO는 영업보고서(Annual Report), 주주총회 소집통지서(Proxy Statement) 등 회사가 발행하는 공식적인 자료에 CEO로 직위가 명기되어 있다.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조문형, 1998). 그러나 우리의 기업 현실에서는 많은 재벌 총수들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고 계열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간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1998년 정부에서는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재벌 총수나 기조실, 비서실의 임원들을 소위 “사실상의 이사 (shadow director)”로 규정하고, 이들이 이사가 아니면서 실제로 업무집행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상법을 개정하였다(상법 제401조; 김건식·정승욱, 2000). 이와 동시에 정부는 IMF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재벌 총수나 비서실 또는 기조실 임원을 계열사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종용하여 재벌 총수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서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총수나 그의 혈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를 최고경영자(CEO)로 규정하였다. 이는 대표이사의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한 기존의 상법과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로 부과한 상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 이외에 경영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이사이면 누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부사장 등 기업 내부의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에 관계없이 상법상 이사이면 누구나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조문형, 1997). 일반적으로 경영 내부의 관리책임과 권한의 주체를 명시하기 위하여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지만 사장 이상의 직위나 사장 이하의 지위에서도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사장 이상의 직위에는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이 있을 수 있으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회장이나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또한 이들 기업은 복수의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하여 삼성전자의 경우 2000년 현재 6명의 대표이사 사장이 있다. 물론 이들은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큰 수조 이상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부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그룹에 따라서는 기업 규모가 작거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부의 경우 부사장 이하의 직위의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다음의 5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최고경영자를 식별하였다. 첫째, 대표이사 중 사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예: 대표이사 사장, 회장, 부회장), 둘째, 법정관리기업은 관리인 혹은 법정관리인, 셋째, 은행은 대표이사 은행장 혹은 은행장, 넷째, 해당 기업에 사장 이상의 대표이사가 없을 경우 부사장 이하 직위의 대표이사(예: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상무 등), 다섯째, 대표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위 직급을 가진 임원(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順)을 최고경영자로 규정하였다. 이 같은 5가지 기준

에 의해서 선정된 상장기업의 CEO 현황은 <표 1>과 같다.

전체 표본 2,718개 기업에서 식별된 최고경영자는 총 3,910명으로 업체당 평균 1.44명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1997년에 1.45명, 1998년에 1.44명, 1999년에 1.43명, 2000년에 1.4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약간 감소하지만 변동의 폭은 크지 않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CEO의 74.8%를 차지하였고, 금융업이 7.9%, 건설업과 운수·도소매업이 8.6%를 점하였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업체 중 최고경영자(CEO)의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1명의 경우가 1,744개 업체-년(firm-year)으로 전체의 64.2%를, 2명인 경우가 822개 업체-년으로 30.2%, 3명인 경우가 119개 업체-년으로 4.4%를 차지하였다. 4명 이상인 경우는 33개 업체-년으로 전체 표본의 1.2%를 차지하여 미미한 비율이었다.

<표 1> 연도별·업종별 CEO 분포

(단위: 명, %)

		연 도 별				전 체
		1997	1998	1999	2000	
CEO의 수	제조업	742	737	723	722	2,924(74.8)
	금융업 ¹⁾	81	80	71	78	310(7.9)
	건설업	85	90	85	78	338(8.6)
	운수·도소매업 ²⁾	86	87	87	78	338(8.6)
	소계(a)	994	994	966	956	3,910(100.0)
연구 대상 기업수(b)		685	688	674	671	2,718개 업체
실제 상장 기업수		769	736	701	693	2,899개 업체
기업별 평균 CEO수[(a)/(b)]		1.45	1.44	1.43	1.42	1.44

주: 1) 금융업은 은행, 증권, 비생명보험사, 리스, 종합금융, 창업투자사, 상호신용금고 등을 포함함.

2) 운수·도소매업은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소비용품 수선업, 육상 및 수상 운송업 등을 포함함.

기업주는 재벌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그룹 대표자에서 명단을 확보하였고, 기타 기업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해당 기업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최대 주주를 파악하여 명단을 확보하였다. 이들에 대한 인적 정보는 한국상장협회의 경영인명록과 일간지 및 통신사의 온라인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최장 4년간의 관찰기간이 다른 패널 자료(unbalanced panel data)이다. 이 중 동향 쌍 분석에 사용된 기업주-전문경영자 쌍(pair)은 1,721쌍이며, 고교 동문 쌍 분석에 사용된 쌍은 1,544쌍이다. 기업주-전문경영자의 동향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4년간의 기간 동안 477개 기업, 495명의 기업주, 그리고 916명의 전문경영자가 관찰되었다. 4년간의 관찰 기간 동안 기업당 1.92개의 기업주-전문경영자 쌍이 존재했고, 기업주당 1.85명의 전문경영자가 존재하였다. 또한 초기에 존재한 566개의 기업주-전문경영자 쌍과 4년의 전 기간 동안에 존재했던 916개의 기업주-전문경영자 쌍을 가지고 평균적인 교체율을 추정하면, 즉 같은 기간 동안 기업주당 0.62(916/566-1)명의 전문경영자가 새롭게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같은 기간

동안 전문경영자의 평균적인 교체율은 62%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IV. 경험적 분석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출신 동향 여부를 알기 위해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식별된 경영자 중 전문경영자를 추출하여 기업주와 출신 지역을 비교하였다. <표 2>에는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의 4개 연도에 해당하는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출신지역 현황이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출신 지역이 파악된 기업주와 전문경영자는 1,721쌍(pair)이며, 이 중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출신 지역이 동일한 쌍의 수는 <표 2>의 대각선 셀에 있는 수치의 합으로서 총 744쌍이며, 전체 1,721쌍의 분석 대상에 대비해 볼 때 43.2%를 차지한다.

<표 2>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출신 지역: 1997~2000

		전문경영자의 출신 지역						전체(%)
		서울·경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기 타	
기업주 의 출신 지역	서울·경기 (473명)*	296 (51.2) ^a	139 (24.1)	43 (7.4)	68 (11.8)	8 (1.4)	24 (4.2)	578 (33.6)
	영남 (564명)	193 (29.2)	322 (48.8)	39 (5.9)	82 (12.4)	9 (1.4)	15 (2.3)	660 (38.4)
	호남 (149명)	45 (26.8)	19 (11.3)	89 (53.0)	9 (5.4)	6 (3.6)	0 (0.0)	168 (9.8)
	충청 (77명)	34 (36.6)	29 (31.2)	7 (7.5)	18 (19.4)	4 (4.3)	1 (1.1)	93 (5.4)
	강원 (110명)	70 (56.5)	17 (13.7)	5 (4.0)	23 (18.6)	4 (3.2)	5 (4.0)	124 (7.2)
	기 타 (93명)	48 (49.0)	21 (21.4)	1 (1.0)	13 (13.3)	0 (0.0)	15 (15.3)	98 (5.7)
	전체 (1,466명)	686 (39.9) ^b	547 (31.8)	184 (10.7)	213 (12.4)	31 (1.8)	60 (3.5)	1,721 (100.0)
동향선호지수 (a)/(b)	1.28	1.53	4.95	1.56	1.78	—		
χ^2 값	30.9	87.8	314.2	3.78	1.43	—		
유의확률	0.001	0.0001	0.0001	n.s.	n.s.	—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업체-년별로 출신 지역이 파악된 기업주의 수임. 기업주의 수가 전문경영자의 수보다 적은 이유는 기업주가 전문경영자와의 비교에서 2회 이상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즉 동일한 기업주 밑에 전문경영자가 2명 이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며, 평균적으로 기업주당 전문경영자의 수는 1.17명(1,721/1,466)임). 동향선호지수는 각 열의 a/b임.

자료: 김용민·이수일(2001)의 <표 2>를 인용하였음.

만약 기업주와 전문경영자가 동일한 출신 지역으로 묶이는 것(표 2의 대각선 셀)이 무작위로 발생한다면, 다시 말해 기업주가 동향출신에 대한 선호나 기피의식 없이 공정하게 전문경영자를 선임한다면, 기업주와 선임되는 전문경영자가 동향일 확률은 전체 전문경영

자 시장에서 그 지역 출신의 전문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될 것이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동향 쌍을 계산하면 472쌍으로 전체 1,721쌍의 27.4%를 차지해야 한다. 본 분석에서 실제로 관찰된 기업주-전문경영자의 동향 쌍(744쌍, 43.2%)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동향 쌍(472쌍, 27.4%)의 158%(744/472×100)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업주와 같은 동향 출신의 최고경영자의 선임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비율에 비해 58%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전문경영자 686명이 기업주와 우연히 동향일 확률은 39.9%(686/1721×100)이다. 그러나 실제 서울·경기 출신 기업주 가운데서 서울·경기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한 비율은 51.2%(296/578×100)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각 지역별로 기업주와 전문경영자가 동향인 비율을 우연히 동향일 확률로 나눈 것을 동향 선호지수(예: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51.2%/39.9% = 1.28)라고 명명한다.

업주와 전문경영자가 동향인 비율이 가장 높은 출신 지역은 호남으로서 호남 출신 기업주가 선임한 전문경영자의 53.0%가 호남 출신이다. 우연히 동향일 확률 10.7%에 비교하면 동향 선호지수가 5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이다. 호남 출신의 동향 선호에 대해 카이스퀘어 검정(χ^2 test)을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 다음으로 동향 선호지수가 높은 출신 지역은 강원으로, 우연히 동향일 확률 1.8%에 비해서 3.2%의 비율을 보여줌으로써 1.78의 동향 선호지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강원 출신의 동향 선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충청 출신의 동향 선호지수는 1.56이지만 충청 출신의 동향 선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영남 출신 기업주가 선임한 전문경영자의 48.8%가 영남 출신이다. 우연히 동향일 확률 31.8%에 비교하면 동향 선호지수가 1.53이고 영남 출신의 동향 선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서울·경기 출신 기업주의 동향 선호지수는 1.28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3>은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동향 여부에 관한 로짓추정 결과이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재벌더미는 기업이 10대 재벌에 속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였다. 부채 비율은 부채액을 분자로, 총자산을 분모로 계산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은 부채/자본으로 계산하여 이 값이 낮을수록 자금 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자본 잠식(자본의 음수값)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분모에 자본 대신 총자산을 사용하였다. 자본 잠식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가 없으면 부채 비율은 0이 되고 부채가 많으면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본 잠식이 있는 기업은 부채 비율이 1을 약간 상회하게 된다.

기업개생이란 그 발생 형태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경영의 부실화, 지급불능 상태, 또는 법률적 도산, 포괄적으로 정상화를 시도하는 기업의 공식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개생을 부도 발생·은행거래 정지, 법정

〈표 3〉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동향 여부 로짓추정

	(1)		(2)		(3)		(4)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절편	-7.329*** (0.824)	-1.614*** (0.156)	-7.273*** (0.835)	-1.602*** (0.159)	-7.363*** (0.825)	-1.622*** (0.156)	-7.449*** (0.828)	-1.641*** (0.157)
재벌(D)	0.361* (0.141)	0.082* (0.033)	0.360* (0.141)	0.081* (0.033)	0.368** (0.141)	0.083* (0.033)	0.386** (0.142)	0.088** (0.033)
금융업(D)	-0.080 (0.252)	-0.017 (0.054)	-0.081 (0.252)	-0.018 (0.054)	-0.049 (0.253)	-0.011 (0.055)	-0.007 (0.256)	-0.001 (0.056)
건설업(D)	0.778** (0.290)	0.185** (0.072)	0.783** (0.291)	0.186** (0.072)	0.786** (0.290)	0.187** (0.072)	0.767** (0.291)	0.182* (0.072)
제조업(D)	0.046 (0.195)	0.010 (0.043)	0.040 (0.195)	0.009 (0.043)	0.067 (0.196)	0.015 (0.043)	0.097 (0.197)	0.021 (0.043)
본사의 서울 경기 소재(D)	0.218 (0.322)	0.047 (0.068)	0.205 (0.323)	0.044 (0.068)	0.245 (0.323)	0.053 (0.068)	0.309 (0.328)	0.066 (0.067)
본사의 영남 소재(D)	0.115 (0.344)	0.026 (0.078)	0.110 (0.344)	0.025 (0.078)	0.132 (0.345)	0.029 (0.078)	0.171 (0.347)	0.038 (0.079)
본사의 호남 소재(D)	0.572 (0.486)	0.135 (0.120)	0.558 (0.487)	0.132 (0.121)	0.617 (0.488)	0.146 (0.121)	0.706 (0.493)	0.169 (0.123)
서울경기 출신 기업주(D)	4.167*** (0.516)	0.778*** (0.051)	4.169*** (0.516)	0.779*** (0.051)	4.159*** (0.517)	0.778*** (0.051)	4.150*** (0.517)	0.777*** (0.051)
영남 출신 기업주(D)	3.878*** (0.517)	0.742*** (0.058)	3.880*** (0.517)	0.743*** (0.058)	3.876*** (0.517)	0.742*** (0.058)	3.861*** (0.517)	0.740*** (0.058)
호남 출신 기업주(D)	4.221*** (0.551)	0.713*** (0.040)	4.230*** (0.551)	0.714*** (0.040)	4.197*** (0.551)	0.712*** (0.040)	4.165*** (0.551)	0.710*** (0.041)
충청 출신 기업주(D)	2.511*** (0.580)	0.541*** (0.084)	2.514*** (0.580)	0.541*** (0.084)	2.511*** (0.580)	0.541*** (0.084)	2.495*** (0.580)	0.539*** (0.085)
서울경기 출신 전문경영자(D)	3.044*** (0.532)	0.626*** (0.082)	3.046*** (0.532)	0.626*** (0.082)	3.018*** (0.533)	0.622*** (0.082)	2.988*** (0.533)	0.617*** (0.083)
영남 출신 전문경영자(D)	3.645*** (0.537)	0.721*** (0.065)	3.647*** (0.537)	0.722*** (0.065)	3.626*** (0.537)	0.719*** (0.066)	3.613*** (0.536)	0.718*** (0.066)
호남 출신 전문경영자(D)	2.878*** (0.553)	0.601*** (0.071)	2.876*** (0.553)	0.600*** (0.071)	2.860*** (0.553)	0.598*** (0.072)	2.838*** (0.553)	0.595*** (0.073)
충청 출신 전문경영자(D)	0.873 (0.584)	0.207 (0.143)	0.875 (0.584)	0.208 (0.143)	0.854 (0.584)	0.202 (0.143)	0.839 (0.584)	0.199 (0.143)
부채 비율			-0.055 (0.134)	-0.012 (0.030)				
기업갱생 I (D)					0.323 (0.262)	0.074 (0.063)		
기업갱생 II (D)							0.265 ⁺ (0.152)	0.060 ⁺ (0.035)
N	1,705		1,705		1,705		1,705	
-2 Log(L)	1,815.5		1,815.3		1,813.9		1,812.4	
Pseudo R ²	0.219		0.220		0.220		0.221	

주: +, *, **, ***는 각각 한계유의수준이 0.1, 0.05, 0.01, 0.001 이하임.

관리·회의, 워크아웃 등 3개 형태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업갱생의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갱생 여부를 결정하였다. 기업갱생은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기업갱생 I의 측정을 위해 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www.kse.or.kr/gongsi)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의 수시공시 내용을 조회하였으며, 부도 발생·은행거래 정지, 법정관리·회의, 워크아웃 등의 공시를 연도별로 추적하여 공시를 한 해당 연도를 기업갱생 여부의 1, 타연도는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기업갱생 II는 기업갱생이 공시된 기업은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의 전 기간이 모두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하였다.

산업은 크게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운수도소매업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에서는 운수도소매업을 기준(reference)으로, 나머지 3개 업종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포함시켰다. 기업주의 출신 지역도 서울·경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및 기타의 5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강원 및 기타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전문경영자의 출신 지역 또한 기업주의 출신 지역과 같은 분류로 4개 지역을 더미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기업(본사)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기업주와 전문경영자가 동향 출신일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소재지를 서울, 영남, 호남,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³⁾

<표 3>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이 10대 재벌에 속해 있으면 기업주와 동향 출신인 전문경영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⁴⁾ 재벌에 속한 기업은 낮은 자금조달 비용이나 여러 특혜를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가설 1을 지지한다.⁵⁾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상태가 나빠짐을 의미한다. 기업의 재무상태가 나쁜 경우 전문경영자(agent)가 기업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빼돌린다면 기업주(principle)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기업주의 비리를 발견하여 이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활용하는 것도 광의의 태만 행동이다.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에서는 전문경영자의 태만 행위가 기업의 사화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기업의 소유주는 최고경영자로 태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향 출신의 믿을 만한 사람을 선임하는

3) 본사의 소재지를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출신 지역과 비교할 때 충청 지역이 제외되어 있다. 표본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청 지역인 경우가 많지 않아 타변수와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 지역은 본사 소재지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4) 10대 재벌 대신 5대 재벌을 사용하여도 10대 재벌의 경우와 유사한 추정치를 얻는다.

5) 우리의 자료에서 기업이 속한 산업은 세분류(4-digit)까지 알 수 있으나 시장집중도(concentration ratio)는 세세분류(5-digit)에서 조사된다. 분석을 위해 세세분류의 시장집중도를 세분류로 aggregation하면 시장집중도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예를 들어, CR3의 경우 해당 기업이 상위 3개사에 들어가는지 여부 또는 시장집중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이 직면하는 경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시장집중도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기업의 10대 재벌 소속 여부를 사용하였다.

성향이 높게 된다. 따라서 부채 비율과 기업주-전문경영자의 동향 여부는 가설 2에 따라 正의 관계가 예상된다. 그러나 열 (2)에 의하면 부채 비율의 계수는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陰으로 추정된다. 기업경쟁 여부의 계수는 열 (3)과 (4)에서 추정하였는데, 이 중 기업경쟁 I보다는 기업경쟁 II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된다. 기업경쟁에 들어갈 기업은 전문경영인의 태만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클 수 있어 동향 출신과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을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이다. 이것은 가설 2를 지지한다.

기업주의 출신 지역별 기업주-전문경영자의 동향 여부를 살펴보면 서울·경기, 영남, 호남, 충청 출신 기업주가 강원·기타 지역 출신 기업주보다 동향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하는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전문경영자의 출신 지역별 기업주-전문경영자의 동향 여부를 살펴보면 서울·경기, 영남, 호남 출신 전문경영자가 충청이나 강원·기타 지역 출신 전문경영자보다 동향 출신 기업주에게 선임되는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영남 지역 출신 전문경영자가 동향 출신의 기업주에게 선임되는 성향이 가장 높다. 영남 지역 출신 전문경영자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0.72로 추정되며 이는 다른 지역 출신 전문경영자의 한계효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고교 동문 여부를 알기 위해 해당 기업의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출신 고교를 비교하였다(김용민·이수일, 2001). <표 4>는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4개 년도에 해당하는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출신 고교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출신 고교가 파악된 기업주와 전문경영자는 1,544쌍(pair)이다. 각 출신 고교별로 기업주와 전문경영자가 고교 동문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고교가 전주고 39.3%(11명)이며, 그 다음으로 경기고 33.9%(104명)이며, 광주고 28.0%(7명), 경남고 27.5%(14명), 목포고 27.3%(6명), 서울고 15.9%(30명), 중앙고 12.5%(4명), 경북고 11.5%(15명), 경북고 9.1%(2명), 부산고 8.7%(2명), 부산동래고 4.8%(1명), 서울사대부고 3.7%(3명), 용산고 3.2%(1명)이며, 기타 고교 1.5%(3명) 등의 순이다. 기업주와 전문경영자가 동문으로 묶이는 현상이 무작위로 발생한다면, 다시 말해 기업주가 동문 출신에 대한 선호나 기피의식 없이 공정하게 전문경영자를 선임한다면, 선임되는 전문경영자가 기업주와 동문일 확률은 전체 전문경영자 시장에서 그 고교 출신의 전문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율(b열)이 될 것이다. 이 기대 비율과 실제 관측된 비율(a열)을 비교하기 위해 후자를 전자로 나눈 것을 고교 동문 선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계산 방식에 의하면 목포고 출신 기업주의 동문선호지수가 34.1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고(23.3), 전주고(21.8), 경남고(7.9), 중앙고(4.6), 부산동래고(4.0), 부산고(3.5), 경북고(3.5), 경기고(2.8), 서울고(2.7), 서울사대부고(2.6), 경북고(1.9), 용산고(1.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밖의 고교는 동문선호지수가 0으로 나타난다.

특정 고교의 동문 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χ^2 test)을 실시하면 서울의 명문고 중에서는 경기고($p < 0.001$), 서울고($p < 0.001$), 경북고($p < 0.01$)와 중앙고($p < 0.005$)의 동문 선호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지방 소재 고교 중에서는 호남권 고교인 광주고($p < 0.001$), 전주고($p < 0.001$), 목포고($p < 0.001$)와, 영남권 고교에서는 경남고($p < 0.001$)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표 5>는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고교 동문 여부에 대한 로짓추정 결과이다. 먼저 기업이 10대 재벌에 속해 있으면 기업주와 고교 동문인 전문경영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6) 이것은 가설 1을 한 번 더 지지한다.

열 (2)에 의하면 부채 비율의 계수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陰으로 추정되어 가설 2를 지지하지 않는다. 기업생애 여부의 계수는 열 (3)과 (4)에서 추정하였는데, 기업생애 I과 기업생애 II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된다. 기업생애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기업은 전문경영인의 태만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클 수 있어 고교 동문과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을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이다. 이것 역시 가설 2를 지지한다.

<표 4>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고교 동문 관계: 1997~2000

	전문경영자와의 동문 관계			전문경영자 비율(b)	동문선호 지수 (a)/(b)	χ^2 값	유의확률	
	동문 관계 (a)	비동문 관계	전체(%)					
기업주 의 출 신 고	경기고(231명)*	104(33.9)	203(66.1)	307(19.9)	12.3%	2.8	132.2	0.0001
	서울고(158명)	30(15.9)	159(84.1)	189(12.2)	6.0%	2.7	32.7	0.0001
	경북고(120명)	15(11.5)	116(88.6)	131(8.5)	5.9%	1.9	7.3	0.01
	경남고(37명)	14(27.5)	37(72.6)	51(3.3)	3.5%	7.9	86.61	0.0001
	보성고(20명)	0(0.0)	20(100.0)	20(1.3)	2.8%	0.0	0.6	n.s.
	중앙고(31명)	4(12.5)	28(87.5)	32(2.1)	2.7%	4.6	11.5	0.005
	경북고(21명)	2(9.1)	20(90.9)	22(1.4)	2.6%	3.5	3.7	n.s.
	부산고(20명)	2(8.7)	21(91.3)	23(1.5)	2.5%	3.5	3.2	n.s.
	웅산고(30명)	1(3.2)	29(96.7)	30(1.9)	2.2%	1.5	0.2	n.s.
	전주고(23명)	11(39.3)	17(60.7)	28(1.8)	1.8%	21.8	222.6	0.0001
	경북사대부고(22명)	0(0.0)	23(100.0)	23(1.5)	1.5%	0.0	0.4	n.s.
	서울사대부고(55명)	3(3.7)	78(96.3)	81(5.3)	1.4%	2.6	3.1	n.s.
	동성고(21명)	0(0.0)	30(100.0)	30(1.9)	1.2%	0.0	0.4	n.s.
	광주고(17명)	7(28.0)	18(72.0)	25(1.6)	1.2%	23.3	151.4	0.0001
	부산동래고(21명)	1(4.8)	20(95.2)	21(1.4)	1.2%	4	2.3	n.s.
	목포고(19명)	6(27.3)	16(72.3)	22(1.4)	0.8%	34.1	194.3	0.0001
	기타(469명)	3(0.6)	505(99.4)	509(33.0)	-	-	-	-
전 체 (1,315명)	203(13.1)	1,341(86.9)	1,544(100.0)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업체-년(firm-year)별 기업주의 수임.

** 경영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16개 고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김용민·이수일(2001)의 <표 15>를 재구성하였음.

6) 10대 재벌 대신 5대 재벌을 사용하여도 10대 재벌의 경우와 유사한 추정치를 얻는다.

<표 5> 기업주와 전문경영자의 고교 동문 여부 로짓추정

	(1)		(2)		(3)		(4)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절편	-4.186*** (0.850)	-0.401*** (0.080)	-4.036*** (0.880)	-0.387*** (0.083)	-4.252*** (0.853)	-0.406*** (0.079)	-4.407*** (0.858)	-0.418*** (0.079)
재벌(D)	0.327+ (0.179)	0.033+ (0.019)	0.324+ (0.179)	0.033+ (0.019)	0.341+ (0.180)	0.035+ (0.019)	0.380+ (0.181)	0.039+ (0.020)
금융업(D)	-0.006 (0.332)	-0.00056 (0.032)	-0.013 (0.332)	-0.001 (0.032)	0.073 (0.336)	0.007 (0.033)	0.153 (0.340)	0.015 (0.035)
건설업(D)	0.601+ (0.338)	0.070 (0.047)	0.600+ (0.338)	0.070 (0.047)	0.633+ (0.340)	0.074 (0.048)	0.613+ (0.340)	0.071 (0.047)
제조업(D)	-0.150 (0.266)	-0.015 (0.027)	-0.169 (0.267)	-0.017 (0.027)	-0.098 (0.269)	-0.010 (0.026)	-0.045 (0.271)	-0.004 (0.026)
본사의 서울경기 소재(D)	0.858 (0.610)	0.069+ (0.041)	0.825 (0.612)	0.067 (0.041)	0.897 (0.611)	0.071+ (0.040)	0.995 (0.614)	0.077 (0.038)
본사의 영남 소재(D)	0.097 (0.662)	0.010 (0.067)	0.087 (0.662)	0.009 (0.066)	0.102 (0.663)	0.010 (0.067)	0.120 (0.664)	0.012 (0.067)
본사의 호남 소재(D)	1.301+ (0.743)	0.195 (0.152)	1.270+ (0.745)	0.188 (0.151)	1.377+ (0.745)	0.210 (0.157)	1.534+ (0.749)	0.243 (0.165)
서울경기출신 기업주(D)	0.802** (0.295)	0.085+ (0.034)	0.807** (0.295)	0.085+ (0.034)	0.781** (0.295)	0.082+ (0.034)	0.762** (0.295)	0.079+ (0.034)
영남 출신 기업주(D)	0.730+ (0.306)	0.075+ (0.034)	0.732+ (0.306)	0.076+ (0.034)	0.732+ (0.306)	0.075+ (0.034)	0.724+ (0.307)	0.074+ (0.033)
호남 출신 기업주(D)	0.844+ (0.422)	0.106 (0.066)	0.857+ (0.423)	0.108 (0.067)	0.798+ (0.424)	0.098 (0.065)	0.736+ (0.424)	0.088 (0.062)
충청 출신 기업주(D)	-1.265 (0.770)	-0.079** (0.028)	-1.267+ (0.770)	-0.079** (0.028)	-1.284+ (0.771)	-0.079** (0.027)	-1.332+ (0.772)	-0.080** (0.026)
서울경기 출신 전문경영자(D)	1.215+ (0.486)	0.130+ (0.058)	1.219+ (0.486)	0.131+ (0.058)	1.166+ (0.487)	0.124+ (0.057)	1.111+ (0.488)	0.116+ (0.057)
영남 출신 전문경영자(D)	0.201 (0.512)	0.020 (0.052)	0.203 (0.512)	0.020 (0.052)	0.162 (0.512)	0.016 (0.051)	0.122 (0.512)	0.012 (0.050)
호남 출신 전문경영자(D)	0.767 (0.542)	0.093 (0.081)	0.767 (0.541)	0.093 (0.081)	0.726 (0.542)	0.087 (0.079)	0.696 (0.543)	0.082 (0.077)
충청 출신 전문경영자(D)	0.831 (0.530)	0.101 (0.079)	0.833 (0.529)	0.101 (0.079)	0.789 (0.530)	0.095 (0.077)	0.773 (0.530)	0.091 (0.076)
부채 비율			-0.144 (0.225)	-0.014 (0.022)				
기업경쟁 I (D)					0.625 (0.321)	0.074 (0.046)		
기업경쟁 II (D)							0.521** (0.202)	0.056+ (0.025)
N	1,525		1,525		1,525		1,525	
-2 Log(L)	1,089.9		1,089.4		1086.4		1,083.4	
Pseudo R	0.068		0.069		0.071		0.074	

주: +, *, **, ***는 각각 한계유의수준이 0.1, 0.05, 0.01, 0.001 이하이다.

기업주의 출신 지역별 기업주-전문경영자의 고교 동문 여부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와 영남 출신 기업주는 강원·기타 지역 출신 기업주보다 고교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하는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나, 충청 출신 기업주는 반대로 나타난다.

전문경영자의 출신 지역별 기업주-전문경영자의 동향 여부를 살펴보면 서울·경기 출

신 전문경영자가 다른 지역 출신 전문경영자보다 고교 동문 기업주에게 선임되는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김용민·이수일(2001)은 1997년 이후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약진을 보여준다. 전체 최고경영자 중에서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8.2%(82명)에서 2000년 10.2%(97명)로 증가했다. 이것은 가설 3의 ①을 지지한다

<표 6>은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4개 연도에 대한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선임 여부에 대한 로짓추정 결과이다.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에 속한 기업이 이외의 산업에 속한 기업보다 호남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하는 성향이 높고, 그 중에서도 금융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가 가장 높다.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업이 정부의 영향력이 크고 규제가 심한 산업이다. 더욱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퇴출,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각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에 의한 정권 담당자에 대한 로비는 생존 차원의 문제였다. 김용민·이수일(2001)에 의하면 금융업에서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비율은 1997년 7.2%(6명)에서 2000년 16.3%(1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가설 3의 ②를 지지한다.

열 (2), (3), (4)에서 부채비율, 기업갱생I, 기업갱생II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

<표 6>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선임 여부에 대한 로짓추정

	(1)	(2)	(3)	(4)
절편	-3.650*** (0.322)	-3.864*** (0.340)	-3.687*** (0.323)	-3.835*** (0.327)
재벌(D)	0.046 (0.160)	0.054 (0.160)	0.064 (0.161)	0.136 (0.162)
금융업(D)	1.231*** (0.352)	1.249*** (0.353)	1.269*** (0.353)	1.427*** (0.357)
건설업(D)	0.803* (0.378)	0.800* (0.378)	0.804* (0.378)	0.767* (0.379)
제조업(D)	0.981** (0.317)	1.016** (0.317)	0.999** (0.317)	1.065*** (0.318)
본사의 호남 소재(D)	3.194*** (0.225)	3.168*** (0.226)	3.201*** (0.226)	3.237*** (0.227)
전문경영자(D)	0.426*** (0.124)	0.387** (0.126)	0.415*** (0.124)	0.362*** (0.126)
부채 비율(D)		0.273* (0.138)		
기업갱생 I (D)			0.455+ (0.258)	
기업갱생 II (D)				0.633*** (0.149)
N	3,853	3,853	3,853	3,853
-2 Log(L)	2,148.4	2,144.9	2,145.6	2,131.5

주: +, *, **, ***는 각각 한계유의수준이 0.1, 0.05, 0.01, 0.001 이하이다.

의 값으로 추정된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기업개선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기업들 즉 부실기업들에 대해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퇴출,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 기업들에게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로비스트(lobbyist)로서의 호남 출신 전문경영자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호남 출신은 소유경영자보다 전문경영자로서 최고경영자일 성향이 높다. 김용민·이수일(2001)에 의하면 1997년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증가는 전문경영자의 경우가 두드러진다. 전체 전문경영자 중에서 호남 출신 전문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8.8%(44명)에서 13.1%(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본사)의 호남 소재 여부는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이론적 논의로부터 유도되고 경험적 분석에 의해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에 속한 기업에서 기업주와 동향 또는 고교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성향이 높았다. 이 결과는 기업이 직면한 경쟁의 정도가 낮을수록 또는 독점적 지대가 클수록 기업주와 동향 또는 고교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기업개선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기업에서 기업주와 동향 또는 고교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성향이 높았다. 이 결과는 태만의 가능성이 높거나 태만으로 인한 손해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주와 동향 또는 고교 동문 출신 전문경영자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늘었다. 정부의 영향력이 크거나 규제가 심한 산업 또는 경우에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위의 첫째 연고주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쟁촉진적 정책과 독점적 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셋째 연고주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즉, 첫째와 셋째 연고주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주의적 경제정책을 펴고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위의 둘째 연고주의는 순기능적인 것이다. 최고경영자 업무의 과정과 성과가 투명해질수록 이 연고주의의 순기능 역할은 줄어들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주안 (2000), “박금성 서울경찰청장 학력 허위 의혹”, 『중앙일보』 12. 8, p.27.
2. 고흥화 (1989),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3. 김건식·정승욱 (2000), “지배주주의 통제방안: 행동, 구조, 시장”, 정광선 외, 『한국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 pp.524~547.
4. 김만흠 (1991), “제6공화국과 지역감정의 심화”,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pp.155~167.
5. 김수복 (1998), 『노동법』, 중앙경제사.
6. 김용민 (2000), “한국대기업 임원의 승진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북악경영연구』 제6호, pp.413~440.
7. 김용민·이수일 (2000), “IMF 이후 상장기업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 『인사관리연구』 25권 1호, 한국인사관리학회, pp.309~345.
8. 김용학 (1991), “엘리트 층원·탈락의 지역격차 - 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결과”,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연구』, 학민사, pp.258~288.
9. 김용학 (1996), 『사회구조와 행위』(개정증보판), 사회비평사.
10. 김차수 (2000), “지역편중 인사 잦대 논란”, 『동아일보』 3. 6, p.5.
11. 박기성 (1990), “地域差別의 經濟學”, 『노동經濟論集』 13권, 韓國勞動經濟學會, pp.97~113.
12. 박기성·김용민 (2000), “노동市場에 나타난 出身地域間 差異”, 『노동經濟論集』 23권 특별호, 韓國勞動經濟學會, pp.195~217.
13. 유의영 (2003), “한국의 지역주의: 사회 각 분야 지도급 인사 구성에 나타난 지역편중도”, 김성국·석현호·임현진·유석춘 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전통과 현대, pp.128~191.
14. 이수영 (2000), “호남검사 요직비율 22%P나 경충”, 『동아일보』 12. 15, p.A3.
15. 이연홍 (1999), “김대통령 ‘지역차별금지법 만들것’- 신문 회견”, 『중앙일보』 3. 2. p.1.
16. 조문형 (1997), 『임원 인사관리의 실제』, 한국인사관리협회.
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1998, 1999, 2000), 『상장회사 경영인명록』.
18. Becker, Gary S.(1957),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2nd ed., 197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 Coleman, James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S95~S120.
20. Cornell, Bradford, and Welch, Ivo(1996), “Culture, Information, and Screening Discrimin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4, pp. 542~571.
21. Hillman, Amy J., Zardkoohi, Asghar, and Bierman, Leonard(1999), “Corporate Political Strategies and Firm Performance: Indications of Firm-Specific Benefits from Personal Service in the U.S. Govern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0, pp.67~81.

22. Kim, Yong-Min, and Park, Ki Seong(2002), “Regional and School Ties between the Owners and the Professional CEOs in Korean Large Firms”, Presented at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oul, Korea.
23. Moon, Hyoung Ku, and Kim, Yong-Min(2000), “Ties between Corporate Ownership and Outside Director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tworks and Organizations, Seoul, Korea.
24. Moon, Ilhwan(2000), “Why Korea's Crony Capitalists are Still in Charge”, *Business Week*, December 18.
25. Prendergast, Canice, and Topel, Robert H.(1996), “Favoritism in Organiz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4, pp. 958~978.
26. Wei, Shang-Jin (2000), “Local Corruption and Global Capital Flow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 pp. 303~354.
27. Wei, Shang-Jin, and Wu, Yi(2001), “Negative Alchemy? Corruption, Composition of Capital Flows, and Currency Crises”, NBER Working Paper 8187.
28. Williamson, O.(1991), “Comparative Economic Organization: the Analysis of Discrete Structural Alternativ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6, pp. 269~296.

abstract

Regional and School Ties between Owners and Professional CEOs

Yong-Min Kim · Ki Seong Park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s of regional and school ties between owners and professional CEOs and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affect tie formation in Korean firm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during 1997 and 2000. In our sample firms, 43.2 percent of owner-CEO pairs are from the same region of birth and 13.1 percent are high-school alumni. Our logistic analyse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haebols are more likely to hire CEOs from the same region of birth and from the same high school as owners than non-chaebols. Firms which are or will likely go bankrupt or workout are more likely to hire CEOs from the same region of birth and from the same high school as owners than others. With the start of Kim Dae Jung government, Honam-born CEOs increase remarkably, especially in industries or firms under the tight government control.

Keywords: chief executive officer(CEO), regional tie, school tie